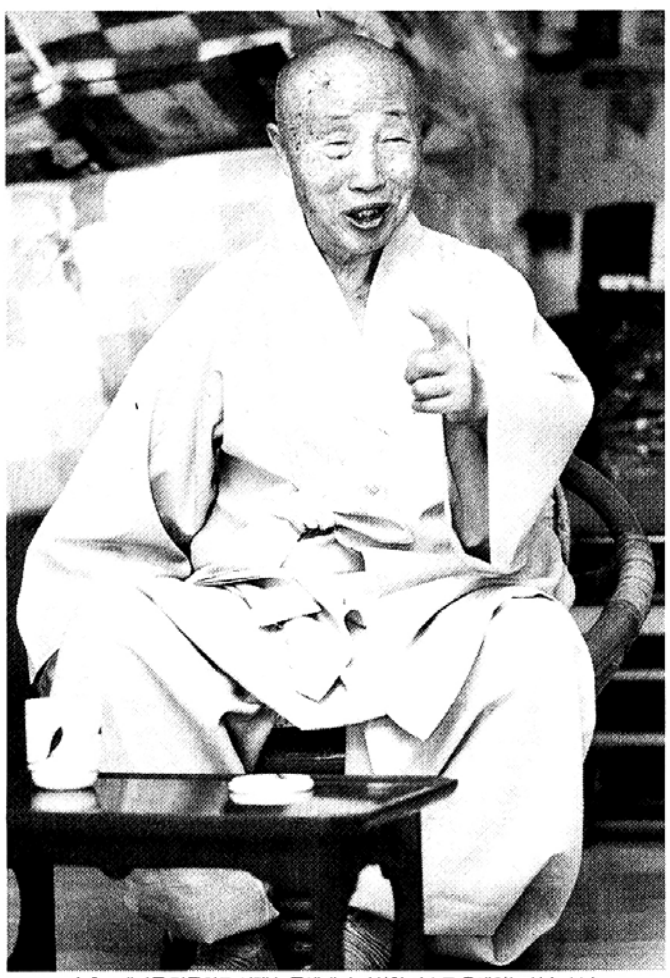
# 너지면 그때부터 禪

## 큰스님

(황대선원 조실)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선객 누구에게나 자상한 미소로 응대하는 성수 스님.

에게 더욱 매
고 있다. 최근
폐교를 임대
도량을 열어
자'를 키울 생

에서 태어난
부산 내원사에
사로 득도, 48
동산 스님을

원력

지했다. 67년
부장, 조계사
운사 주지, 78
대회(일본주
조계종 총무
다. 현재 조계
이며, 경남 합
조실로 주석

도록

고

집중

"마음의 문이 쳑 열리고 보면 천하 만물이 선(禪)
아닌 것이 없고, 세상의 만 가지 일들이 다 도(道) 아
닌 게 없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나무와 돌도 도(道)
를 알려주고, 밥솥도 도를 알려주며, 발길에 차이는
이 모두 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법(禪法)을 자득
自得)하니, 산산(山山) 수수(水水)로다.' 산수 이대로
가 선이지, 선에 무슨 다른 도리가 있는 줄 알면, 경
계에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禪)은 산상(山上)
의 석두(石頭)와 같고, 선은 산상의 고목(古木)과 같
습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본 뒤'의 오후(悟後) 수행이 더 어렵다고 하시고, 선지식 만나는 것이 구도자에게 절대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집을 지으려면 목수를 찾아야 하고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식음을 전폐하듯 하고 도를 닦으려면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친견해야 합니다. 생사 자재한 법을 구하기 전에는, 애간장이 녹을 듯 정진하여 무애춤을 춘(初見性) 뒤에 눈 밝은 선지식에게 물어서 실오라기만큼도 헛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서둘러서도 안되고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산은 갈수록 높고 물도 갈수록 깊습니다. 도를 안 뒤가 더 어렵습니다."

◆깨달음 후 수행의 단계를 여쭙는 것은 외람된 질문인지요?

"기자가 아직 견성을 못했으니, 견성한 이후에 찾아오면 일러주리다. 다만, 자연과 비유해서 말하자면 식물의 씨가 삼일, 오일, 칠일 안으로 대개 싹이 트듯이 참선하는 사람도 대개 그 동안에 눈을 뜨지만, 실은 견성 다음 즉 오후가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싹이 튼 씨는 물보다도 연한 그 촉이 굳은 땅에 발을 내려 잎이 나오면 선지식이라 하고, 그 속에서 줄기가 나오면 조사(祖師)라 하고, 꽃이 피면 보살이라 하며, 열매가 익으면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를 증득하는 과정도 1지(一地), 2지, 3지, 내지 10지, 등각(等覺), 묘각(妙覺), 대각(大覺)의 순서를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요즘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으로, 선지식을 찾기 어려움으로 해서 법거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은 화두(話頭)를 얻어 시작하는 것인데, 제방에서 화두를 주는 이도 많고 또 화두를 타 온 이도 무수히 많지만, 부처와 가섭 사이에 오고 간 것이 미소(微笑)인지, 비소(非笑, 비난하는 웃음)인지, 흑백을 가려 볼만한 안목이 있는 이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화시중(拈花示衆) 때의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송이를 밤이라 하면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속에 든 알밤의 진귀하고 미묘한 맛을 알기는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다'라고 으스대는 까닭에 밤송이에도 속으니, 참으로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밤송이를 보고 견성했다고 하지만 더욱 더 깊이 살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스님께서 구도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요즘 흔히 보면, 진정한 발심없이 자비문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뜻없이 받은 화두가, 자다 먹는 떡과 같이 아무 맛을 모르고 좌복(座福)이나 지키며 세월만 보내니, 행여 어느 부처가 도를 일러주겠어요. 참으로 알고 보면, 교리나 화두라는 것은 달을 가르킨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가락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니, 한평생 고민하고 퇴굴심에 병만 들어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도자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노니, 자기의 금강반야(金剛般若), 즉 칼날 같은 지혜로써 탐진치를 여지없이 베어버리면 금강보리좌에 올라앉을 것입니다. 불조 모두가 은산철벽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라 했습니다. 조사가 걸어 간 이 길은 갈수록 높아가고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등이 휘고 간이 타는 구도의 장정에서 수행자는 거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불조(佛祖)를 넝큼 잡아 삼킬 수 있는 거침없는 사자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닦을 수 있는 생활선 방편을 일러주십시오.

"첫째, 매일 자고 일어나서 첫 말 한마디만큼은 득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둘째, 매일 첫 걸음은 무게있는 걸음을 걸으세요. 셋째,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동안이라도 부처님 몸 모양으로 당당하고 원만하고 뚜렷하게 앉아 마음을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실천해 보세요. 수행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자기 걱정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주경스님의

## 스님이야기

미산스님

미산스님은 평범해 보인다.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정말 평범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특출한 멋이 배어있다. 마치 질리지 않는 뚝배기나 된장찌개처럼 천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것이다.

대학 1년 선배였던 스님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나와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동국대 불교학생회는 석림회 2학년 스님 두 분씩 소임을 맡아 매주 법회를 지도해주셨다. 굉장히 활동적이며 적극적 성격의 선종스님과 조용하고 차분한 미산스님 두 분은 2학년이 되면서 스님들의 추천과 자원으로 지도법사 소임을 맡았다. 두 스님들은 매주 정기법회 외에도 바쁜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수시로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에 들르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초파일준비 때는 연등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서 하루종일 연잎을 비비고 간식도 함께 하며 일상가운데 학생들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셨다.

활달한 선종스님의 그늘에 가려 거의 눈에 띄지 않던 미산스님이 분명하게 각인된 것은 여름



수련회에서였다.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참선지도를 맡은 미산스님은 참선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었고, 자세 하나 하나 빠짐없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세하게 챙겨주니 수련생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출가 수행자의 진면목은 판도방(判道房)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미산스님은 그 자리를 통해 일상적인 '지도법사스님'에서 진정한 스승으로서 '스님'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다. 좌선하고 앉은 모습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신심이 우러나고, 잠시라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불교를 믿고 배워왔지만 수행의 깊이와 가치를 그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열 여섯 나이에 선방에 첫 철을 살았던 미산스님의 수행력이 바탕이 되어 주었다. 참선을 마치고 잠시 몸풀이 요가를 할 때 두 다리가 쭉 펴지며 책에서만 보았던 어려운 자세들이 스님의 몸을 통해 보여질 때 수련생들은 또 한번 놀라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신이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해 조금씩 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꾸준히 하게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금방 당신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학생회원들은 한동안 요가열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단정한 두루막차림에 늘 쪼래기를 어깨에 걸고 차분차분 걸으며 급한 일이 하나도 없어보이던 모습은 마치 사리불과 목건련존자를 부처님의 제자로 인도한 마승비구처럼 선뜻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모습이다. 담담한 미소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 가곤 하던 스님은 수련회이후로 학생들의 상담자 역할도 맡게 되셨다.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주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배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했다.

간혹 학생들이, 동아리방에 붙어있던 법당에서 여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스님은 그럴때도 큰소리로 꾸짖거나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 잠시 굳은 얼굴을 보이다가도 금새 풀고는 차분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곤 하셨다. 승려의 권위나 위엄보다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자세와 논리로 매사를 풀어가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여법함' 그 자체로 인정되던 미산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날이

### 평범 속에 특출한 멋 스며

### 권위보다 매사 대화와 논리로

있었다. 특별법회를 끝낸 뒤 다과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미산스님은 지도법사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법사스님들께 마이크를 돌린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님의 노래를 전혀 기대도 않고 다만 짤막한 인사말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산스님은 당시 유행하던 이선희의 'J에게'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변함없는 단정한 자세로 거침없이 부르는 열창과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한순간에 분위기를 열광시키고 말았다.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대중들의 앵콜을 사양하며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 돌아가 앉으셨다. 나중에 들으니 학생들 지도를 맡고있는 입장에서 한번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딱 한 곡만 연습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최신 유행곡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시간이 되어 새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실 때 스님은 깍듯한 태도로 후임스님을 소개하면서 법사의 인연이 소중했지만 이전 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매정하리만큼 똑 부러지게 법사의 인연을 매듭지으셨다. 있는 정을 다 띨 것처럼 지도법사를 그만두시고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다정다감하셨고 공부에 전념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남으셨다. ▩서산 부석사 주지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사주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지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일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직원공개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에서는 수원시 서호노인복지관 수탁과 더불어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효의 도시 수원에서 노인복지 증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인재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02년 10월 1일 ~ 9일
2. 모집인원 : 00명 (경력 및 신입)
3. 모집분야
① 경력 : 총괄부장, 총무 · 시설 · 사업 · 복지팀장
② 신입 및 경력 : 회계, 서무, 영양사, 조리사, 관리(기계)기사, 운전기사(대형), 수영강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관리인(미화원)
4. 자격사항
① 부장 : 관련기관 경력자
② 팀장 : 관련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④ 기타 : 관련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6. 지원방법 : 우편(10월 11일 도착 분까지) 및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afe.daum.net/theolders
※ 우편접수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수원포교당
7. 발 표 : 10월 12일 서류합격자 및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8.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 (전화 : 031)245-9670 ~ 2 / 031)255 - 2692)

인재를 찾습니다

(재)선학원은 문서포교를 담당할 불심 돈독한 인재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 1명
▶ 자 격 : 대졸이상으로, 사보 제작 경력이 있는 분
▶ 나 이 : 30~40세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인 기명기사 포트폴리오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 접수방법 : 내사, 팩스, 우편, E-mail(arahanjh@hanmail.net)
▶ 접수마감 : 10월 12일
▶ 가입보험 : 4대 보험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 직무내용 : 정기 사보 제작 등
▶ 문 의 :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국

재단법인 선 학 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110-240)
TEL (02)734-9654~6 / FAX (02)734-3410